

Editorial Comment: 노인의 지적 능력

윤 가 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평생발달심리학적으로 지적 능력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생의 전반기 특성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지적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의 후반기 특성으로 그 능력이 감퇴하는 것이다. 흔히 후자를 노화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왔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들의 지능이 감퇴한다는 논리를 최소한 1960년대까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 동안 대부분의 지능에 관한 연구는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을 동시에 비교하는 횡단적 접근방법(cross-sectional approach)에 의존하면서 결과를 비교했는데, 이 경우는 십중팔구 노인들의 수행결과가 젊은이들보다 더 떨어지게 마련이다. 바로 노인들의 살아왔던 환경이나 시대적인 배경의 효과(이를 cohort effect라고 표현함)를 무시한 상태의 검사가 이루어졌기에 나타난 차이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지능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마다 다르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또 생의 후반기에 관심을 가진 노년학자들이 장기 종단적 접근방법(longitudinal approach: 동일한 개인이나 집단을 장기간 추적하면서 연구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노인들의 지능 변화를 연구하면서 그 당연하다는 논리에 이의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미국 워싱턴주 Seattle지역에서 1956년부터 시작된 지능에 대한 장기 종단적 연구의 일부에서 언어성 지능검사 점수가 생의 후반기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다 (Schaie & Strother, 1968).

물론 장기 종단적 연구를 시도할 때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최초 연구에 참여했던 연구대상자들이 건강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후속연구에 참여하지 못해버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노인들이 지능변화가 별로 없는 상태로 지내다가도 사망하기 거의 5년 전부터는 지적 능력의 감퇴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문제도 생겨난 것이다. 전자를 중도탈락자(drop-outs) 또 후자를 “종말기 감퇴(terminal)” 현상이라고 표현한다 (Kleemeier, 1962).

곧 노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hort effect와 drop-outs 문제를 무시하면서 단순히 젊은이들과 비교했을 경우 연령 증가와 함께 지능감퇴가 나타난다는 기존의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지만, 앞의 문제를 고려한 상태에서 한 개인이 살아온 시대와 환경을 고려하면서 지능을 살펴볼 때는 그 변화가 생의 후반 기까지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권에서는 노인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정년단축이다 (윤가현, 2000). 정년단축의 논의 배경에는 고구려시대에 노인의 가치가 무시되면서 유행했다는 고려장(물론 이는 구전설화에 불과한 것인지 실제로 그런 풍습이 존재했는지는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다)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도 있다.

참 고 문 헌

- 윤가현 (2000). Editorial Comment: 정년 퇴직. *한국노년학연구*, 9, 3-4.
- Botwinick, J. (1977). Intellectual abilities. In J. Birren & K.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pp. 580-605).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Kleemeier, R. (1962). Intellectual change in the senium. *Proceedings of the Social Statistics Section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 290-295.
- Schaie, K., & Strother, C. (1968). The effects of time and cohort differences on the interpretation of age changes in cognitive behavio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 259-294.